“상생·혁신 기반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이끌겠다”

박병규 광산구청장 민선 8기 구정 비전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추진
송정역세권 1시간 맛거리 조성
시민 목소리 경청 현장소통 강화

민선 8기 시대를 연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상생과 혁신으로 광산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깨워 지역 발전과 도약의 길을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상생과 혁신으로 광산을 새롭게 시민을 이롭게’ 라는 민선 8기 구정 목표를 중심으로 시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듣는 경청행보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격식을 갖춰 진행돼 온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경청과 소통을 민선 8기 모든 구정의 ‘출발점’ 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또한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주력한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편집자 주

박병규 청장은 14일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더 빨라진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추진’, ‘광주송정역세권 1시간 맛거리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분야 9개 과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광산 공동체 모두의 힘을 합해 상생으로 튼실한 경제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민선 8기 구정 비전으로 ▲소통으로 친근한 행정 ▲상생으로 튼실한 경제 ▲참여하며 나누는 복지 ▲문화관광 꽃피는 도시 등 4대 방침을 제시했다.

특히 박 청장은 ‘광주글로벌모터스’로 현실화된 광주형 일자리를 최초로 설계하고 제안한 ‘노동일자리 전문가’로 통한다. 그만큼 ‘일자리 혁신’에 관한 공약과 비전이 단연 눈에 띈다.

노사와 시민사회,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과를 광산구 지역 차원의 모델로 확산

하는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가 대표적이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시즌2다.

지역 공동체의 지혜와 힘을 모아 기업의 비용은 낮추고, 노동자에게는 적정 임금과 주거·교육·복지 등 사회임금을 보장하는 지역일자리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전문컨설턴트를 투입해 지역산단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박 청장은 “걷고 싶고, 걷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 ‘광주는 갈 곳이 없다’는 시민의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송산근린공원, 영산강, 황룡강과 장록습지, 어등산, 용진산 등 자연자원과 임방울·박용철·기대승, 광산농악과 고려인마을 등을 역사적 인물과 문화 콘텐츠를 모두 연결한 ‘생태·문화·예술 탐방로 30리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산소 스페이스’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을 사람이 머물고 즐기다가는 지역 최고의 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역 앞 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인근 1913송정역시장, 광산로 등 상권을 ‘광주송정역 1시간 맛거리’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마을복지관 확대, 100세 시대 커뮤니티 헬스케어 등 촘촘하고 튼튼한 복지안전망으로 고령화, 외국인 주민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적극적으로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현장소통 행정도 강화한다.

특히 민선 8기 1호 결재인 ‘찾아가는 경청 구정장실’을 활발히 운영해 “최대한 많이 시민을 만나고, 현장에서 답을 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청장은 “광산구는 넓은 면적과 42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7개의 산업단지를 가진 광주경제의 심장이자 광주송정역과 광주공항이 위치한 교통·물류 중심지”라며 “영산강, 황룡강, 어등산 등 천혜의 자연자원도 풍부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함께 잘 살도록 하는 ‘상생’,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존 틀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으로 이러한 광산의 자원과 강점을 활용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시민의 참여와 의사를 존중하고 구정에 반영해 시민이 원하는 광산, 시민이 이로운 광산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영봉 기자

어린이집 학대 예방 교육

광주시 광산구는 최근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지역 소재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선언행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와 교육은 아동 보육의 최일선 현장인 어린이집부터 경각심을 갖고, 아동학대 예방에 나서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는 아동학대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 어린이집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고민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내일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모든 보육 교직원분들이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광주시 광산구가 지난 11일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지역 소재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선언행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광산구 제공

‘온가족 구강건강’ 프로그램 참여 가구 모집

선착순 10팀…위생체크기 대여

광주시 광산구는 온가족 칫솔질 실천 프로그램 ‘이가튼튼만들기’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가튼튼 만들기’는 온가족을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질 습관 형성을 위한 1:1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치아건강 이력관리를 통해 맞춤형 ‘구강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광산구는 지역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10가구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선정된 가구에는 구강위생체크기 1대를 대여한다. 이후 각 가정은 앱을 활용해 구강생태를 확인하고, 전문 피드백과 정보를 받게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온가족이 함께 올바른 칫솔질 습관을 형성해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미래세대 자원순환 교육’ 그림책 제작 눈길

지구는 응급상황 등 2종 배포

광주시 광산구는 유치원생·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아동용 자원순환 그림책을 제작, 교육현장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원순환 그림책은 ‘지구는 응급상황! 플라스틱을 줄여라!’, ‘신비한 종이배출의 세계! 같이 탐험해볼래요?’ 총 2종으로 제작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 종이팩·플라스틱 분리배출 방법, 올바른 분리배출의 필요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화의 형식으로 쉽고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한편, 스티커 놀이, 재활용 퀴즈 등 활동지를 부록으로 넣어 효과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김민성 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산구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총연합회광산구분회, 광산구청소행정과 여성아동과가 협업을 통해 제작했다.

광산구는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현장에 그림책을 배포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초등학교 1·2학년 교육에선 이미 그림책을 활용하고 있다. /윤영봉 기자

광산구·호남대, 인문도시 지원사업 선정

국제심포지엄 등 추진

광주시 광산구와 호남대학교가 ‘2022년도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14일 광산구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도시 지원사업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인문자산을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문지식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에선 전국 6개 대학교가 선정됐다. 이중 광산구와 지난 4월 ‘인문도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호남대는 ‘광주 월곡-유라시아를 잇는 평화공존의 인문도시’ 사업으로 선정돼 앞으로 3년간 국비 3억 9,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광산구와 호남대는 월곡동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1차 년도 고려인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아시아의 기억을 걷다’를 시작으로 선·이주민 문화와 월곡동 현안 등을 다루는 ‘소통과 공존의 인문학’, ‘평화와 비전의 인문학’을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고려인 이주 및 문화사를 다룬 인문강좌와 인문전시, 국제심포지엄 등 인문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자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유라시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윤영봉 기자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

성공 창업에서 글로벌 기업까지 !

일자리 공유 카페 —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청년창업 육성 및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창업 및 경영컨설팅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 자금상담 등

청년창업 허브 사업 — 청년의 창의적인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및 협업공간 지원

마을공방 운영사업 — 공방창업활성화를 위한 공방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공간 지원

광주광역시동구 GWANGJU DONGGU 창업지원센터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4 동구창업지원센터
Tel : 062) 608-3991 ~ 2
Fax : 062) 608-2719